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평화의 씨앗을 심는 우리 (마태 5:9)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대강절 제3주 / 성서주일 】

전 주	반주자
은총을 기리는 노래	비 전
◆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경배의 찬송	18. 내 영혼아 곧 깨어
◆ 공동기도	다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음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르겠습니다. 드릴 것 없는 빈손을 나무라지 않으시고, 찢어져 흠집투성이인 마음을 흘려보지 않으시며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해주는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 마음은 늘 든든합니다. 등불을 밝혀놓고 집 나간 자식을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주님은 언제나 우리가 돌아가 안겨야 할 고향이십니다.

주님, 깨끗한 마음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의 좋은 이웃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고 가는 인생의 짐이 무겁다는 핑계로, 해야 할 일이 많다는 핑계로, 세상이 악하다는 핑계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을 닮은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를 용서해주십시오. 우리 마음에 말씀의 등불을 밝혀주십시오.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다함께
◆ 위로의 말씀	시66:20
◆ 교 독 문	49. 빌립보 2장
◆ 영 광 송	6. 찬양 성부 성자 성령
대표기도	I. 문영혜 집사 II. 한완식 장로
응 답 송	성가대
찬 송	485.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성경봉독	마 24:37-51
	시18:25-30
	이동천 집사
찬 양	성가대
말 씬	자, 꼭지시험이다
	말씀 등불 밝히고
	김재홍 목사
	김기석 목사
거둬의 기도	다함께

헌신의 찬송	209. 주의 말씀 받은 그날	다함께
헌금봉헌	<성가대 여성 트리오>.....	다함께
♠ 봉 헌 송	353.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다함께
♠ 봉헌 및 목회기도		인도자
공동체 소식		인도자
♠ 평화의 인사		다함께
♠ 결단의 찬송	평화의 기도(성 프란시스코)	다함께
♠ 보냄의 말씀		다함께

인도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말씀의 지도를 간직한 사람은 길을 잃지 않습니다. 말씀이 인도하는 길로 힘차게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삶을 통하여 말씀에 육신을 입히십시오.

다함께 :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 우리가 머무는 곳 어디서나 주님의 사신임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매끈한 말과 과장된 행동을 버리고, 살아 있는 행동으로 복음을 선포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온 세상에 생명의 빛을 나르는 이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 축 복

담당목사

☼ 우리의 내일은 밝습니다 ☼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2004년도 당회	신명기강해(24)
인도 : 김기석 목사	기도 : 조항범 집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기석 목사 김기석 목사	최성애 집사 구성실 장로	인도자 백혜숙 권사

12월	영접위원	윤석철	김인걸	오진훈	임창선	허정윤	정경례
	헌금위원	이용한	방문성	김중수	구성실	이기분	박혜경

지금 이 순간 나의 삶은?

나는 독자들에게 아침마다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해볼 것을 권한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차지하고 있는 이 공간에서 나는 내 주변사람들의 삶에 고통을 덜어주고 있는가 아니면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는가? 각 부분에는 전체에 대한 책임이 있다. 긍정적이거나 혹은 부정적인 나의 태도가 미치는 결과들은 오직 하느님만이 아신다. 다음을 염두에 두자.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나로 인해 더 행복해하는가? 내가 작업현장의 책임자건, 교사건, 한 가정을 이끄는 어머니건, 장인이건 그건 중요치 않다. 내가 존재하고 관계를 맺고 일하는 방식이 삶의 무게를 더 가중시키고 있는가, 아니면 주변의 분위기를 한결 좋게 만들고 있는가?

..... 행동하는 건 좋지만, 누구를 위해, 어떻게, 그리고 어떤 조건에서 행동한단 말인가? 결론적으로 나는 가난한 이들을 위해 그들과 함께하는 행동의 주요 기준들을 나열해 보고자 한다.

마음

인간 대 인간의 살아 있는 관계를 여는 열쇠는 무엇인가? 파스칼이 말하는 의미에서의 마음이 그것이다. 다시 말해 지적·감성적·의지적 능력들이 하나로 결합되는 곳, 개인의 가장 내밀한 중심이라는 의미에서의 마음 말이다. 온기로 데워주고 열정으로 불타오르게 하는 것은 마음이다. 마음은 우리가 타인에게 다가갈 때 온기와 활력을 제공한다. 타인은 차가운 사유나 감수성, 엄격한 결심만을 통해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전 존재의 자발적인 열정을 통해 이해된다. 다양한 기질에 따라 그 전개방식은 다르지만 동일한 자애의 열정이 타오르는 사람들 마음 속에는 동일한 불꽃이 이는 것이다.

협력

다음으로, 성공은 협력에 달려 있다. 협력이란 물론 여러 협회들과 단체들 간의 협력을 말한다. 그것은 또한 해당지역 기관들과의 공동작업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나 개인에게는 고통받는 자들과의 협력을 의미한다. 우리가 해야 할 첫째 일은 그들에게 귀를 기울이는 것이

다. 그들은 자신들의 비참한 생활의 원인들을, 그리고 그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들과 가장 가까운 주변 사람들이 그들을 가장 잘 이해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존중

가난한 이를 존중하지 않고서는 가치있는 그 무엇도 건립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 내면의 태도는 우리의 시선과 몸짓과 말투에서 드러나게 마련이며, 삶에 짓눌리고 상처받은 이는 그걸 즉각 느끼게 될 것이다. 우월감은 인간적 접촉을 사라지게 만드나 겸양은 접촉을 이어준다. 평등의 분위기가 풍겨나올 때 ‘가난한 이들을 위해 가난한 이들과 함께하는 투쟁’은 그 강력한 힘을 얻게 된다. 모든 사람이 갈망하는 첫째 목표는 자립이 되어야 한다. 고삐를 늦출 줄 알고 우리가 더 이상 필요없게 물러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다. 제대로 된 인도주의적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이 규칙을 따른다.

공동의 행복

공동의 행복이란 각 개인과 모두가 함께 ‘잘살기 위한’ 목적이다. 우리가 인류의 반 이상을 빈곤 속에 내버려둔다면 세계가 어떤 카오스 속에 떨어지게 될지 깨달아야 한다. 세계의 부를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여, 당신들은 그런 생각을 하는가? 개별적인 이해타산에 안달하는 여러 국가들, 기관들, 기업들, 개인들, 당신들은 공동의 행복이 타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당신들에게도 생과 사가 달린 문제라는 걸 모르는가? 공동의 행복을 거부하게 되면 점차 세상이 화산으로 변하게 된다. 공평성에 어긋나게 축적된 용암들이 언젠가는 폭발하리라는 걸 모르는가?

의식

우리 각자의 책임이 정의를 위한 이 급박한 투쟁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요는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이 작은 인간애가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맡겨졌다는 사실을 의식하는 것이다. 지구상에 정의를 바로 세운다는 생각은 허울좋은 유토피아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 가정에, 우리 건물에, 우리 작업현장에, 우리 동네에 우리 도시에 세워야 할 정의는 우리의 첫째 의무처럼 생각된다. 그럴 때도 우리는 제3세계의 호소들을 진정으로 의식해야 한다.

—엠마누엘 수녀, 『풍요로운 가난』 중에서

■ **마/음/으/로/읽/는/글**

어떤 기도

적어도 하루에
여섯 번은 감사하자고
예쁜 공책에 적었다

하늘을 보는 것
바다를 보는 것
숲을 보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기쁨이라고
그래서 새롭게
노래하자고.....

먼 길을 함께 갈 벗이 있음은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기쁜 일이 있으면
기뻐서 감사하고
슬픈 일이 있으면
슬픔 중에도 감사하자고
그러면 다시 새 힘이 생긴다고
내 마음의 공책에
오늘도 다시 쓴다
(이해인)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원로목사 : 박정오 소속목사 : 한인철 원로전도사 : 박옥식
원로장로 : 방현복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장 로 :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이용한 윤석철
성가대장 : 이용한 지휘 : 윤주원 반주 : 최윤선 안홍숙 한선희 김수진
관 리 인 : 노용래 운전기사 : 오진훈 도서관 관장 : 이순정

◇ 헌 금 영 수 기 ◇

십일조헌금:

김기석 김희우 윤정덕 구성실 김중수 이순정 오진훈 노순옥 구명자
 백승민 김필순 안정숙 김순복 전영웅 이인웅 김 크 윤수진 김윤주
 박옥경 이정규 이인섭 윤미경 김지윤 김지호 박홍엽 김재홍 최희영
 김희진 박홍재 임보람 김진경 송동준 노용래 전영순 강인식

월정헌금:

권혁순 박혜경 김명순 정두리 김남종 오복순 이정은 김미순 송의섭
 이은자 이호원 서재홍 박현우 노미향 이증자

감사헌금:

김훈동 이인섭 임창선 홍순구 안홍숙 문금석 서현화 최인환

생일감사헌금: 송양진 김중수 이소순

◇ 속 회 보 고 ◇

속 명	인 도 자	속 장	모 인 곳	다음 장소
예루살렘	유 영 남	차 혜 심	하 재 두	연 합 속 회
베들레헴	윤 정 덕	정 경 레	정 경 레	
안 디 옥	임 정 자	곽 권 희	이 춘 희	
가 나 안	문 영 혜	박 경 선	곽 혜 자	
갈 릴 리	조 병 주	박 애 순	조 병 주	
베 다 니	임 창 선	박 홍 재	박 홍 재	
시 온	박 효 선	허 정 윤	송 의 섭	
엠 마 오	최 숙 화	권 미 정	권 미 정	
에 베 소	이 순 정	한 선 희	이 순 정	
빌 립 보	최 종 원	이 형 숙	최 종 원	
가 버 나 움	구 성 실	안 홍 숙	안 홍 숙	
나 사 렛	백 혜 숙	정 옥 영	정 옥 영	
갈 라 디 아	송 양 진	유 경 순	안 경 숙	
고 린 도	이 영 란	이 증 자	배 삼 순	
다 메 섹	박 혜 경	최 영 혜	박 혜 경	
두 란 노	안 종 일	정 현 주	교 회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성서주일** : 오늘은 만국 성서주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손에 들어오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숨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성서는 우리의 길입니다.
2. **당회** : 오늘 오후 2시 지하 친교실에서 모입니다. 일년 동안 걸어온 우리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모임입니다. 당회원 여러분들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3. **연합속회** : 17일(금) 오전 11시 교회에서 모이고 속회 겨울방학에 들어갑니다.
예배인도 - 빌립보 속 식사준비 - 엠마오 속
4. **특별새벽기도회** : 벌써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고요한 중에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5. **헌화 신청** : 내년에 주님의 교회를 위해 헌화하실 분들은 1층에 있는 신청서에 내용과 함께 기입해주십시오.
6. **신앙실천** : 우리의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선뜻 다가서십시오. 주님은 어려운 이를 돕는 일에 우리가 기꺼이 동참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 헌화 : 문금석 권사 (시모님 21주기, 남편 2주기 추모)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6:0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